

## 교차로 황색신호는 정지신호 무시뎀 대형사고 위험 '아찔'

### 나부터 안전운전



#### ④운전자 신호준수는 필수

운전자 이모(34·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최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녹색신호가 들어와 승용차를 출발시키자마자 맞은편에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이 차량 앞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이씨는 "조금만 빨리 출발했다라도 충돌사고로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황색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신호위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황색신호는 정지신호'라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만2995건. 이중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는 1256건(사망자 11명·부상 2274명)이다.

이처럼 신호위반은 교통사고로 직결된다. 더욱이 운전자 일부가 황색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황색신호는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빠져나가고 나머지 차량은 즉각 멈춰야 하지만, '왕초보' 운전자들조차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특히 초보운전자들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멈추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데, 뒤따라오는 차량은 짜증을 내듯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고 심지어는 차선을 바꿔 진행하기도 한다.

'황색 신호는 정지신호'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등 무질서한 교통 의식을 개선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서는 황색신호는 분명 준비신호이고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는 반드시 멈추도록 계도 단속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황색신호에 차를 멈추는 습관만 정착하면 교차로 교통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황색신호를 가속신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교통 사고가 일어났을 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물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와 보험사·공제조합 등에 접수된 교통사고 97만9307건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전체 3만2995건이 발생한 해 인구 10만명당 2275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의 오명을 안았다. 또 광주는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도 579건을 기록해 1위를 나타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후원 손해보험협회

광주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캠페인



꽃그림 단장 골목길 14일 광주시 북구 임동 대원시장에서 열린 '행복한 창조마을 계획보고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꽃그림으로 단장된 주택가 골목길을 밝은 표정으로 거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학업스트레스 줄고 체험 활동 강화” “학력저하·서민 사교육비 부담 증가”

### 내년 초중고 주5일수업 전면 실시 환영과 우려

정부가 현재 겨울 시행중인 주5일 수업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키로 하자 교육계와 학부모·교육 단체는 '환영'과 '우려'로 반응이 엇갈렸다.

교육단체 측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사의 자기계발 시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서민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학부모가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를

늘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손충모 부대변인은 "주 40시간 근무시간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정부가 '토요일에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가정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가계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 김모(45)씨는 "정부가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체험활동 등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 하지만, 맞벌이, 서민가정에서는 사실상 여력이 없다"며 "결국 아이를 학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할 수 없는 사업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도

깊다. 양모(여·40)씨는 "정부가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일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습 시간 단축 등 학력저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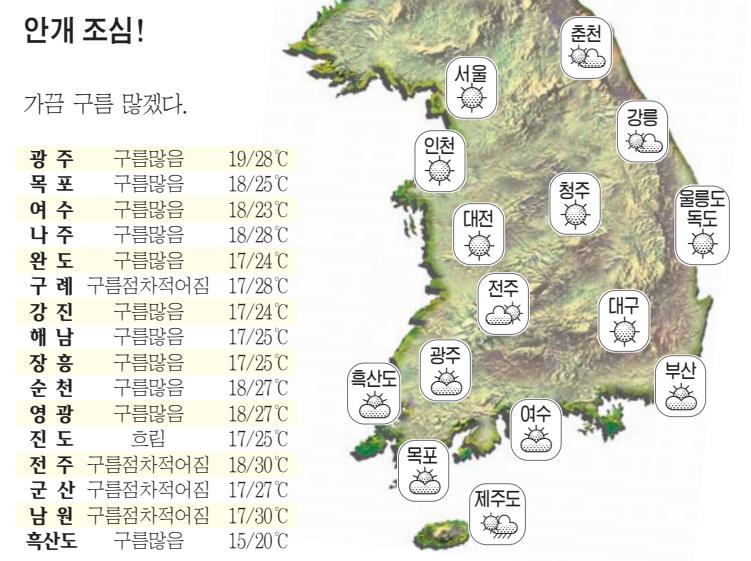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190일로 줄지만, 수업시간(수업시간)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6교시, 7교시로 운영되는 중·고교의 주중 수업시간이 7교시, 8교시로 늘어나고, 그와 연계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8분  
달돋이 19시 21분 달질 04시 23분



시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	☠	☹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	☠	☹

날짜	날씨	최저/최고
16(목)	☀	19/28
17(금)	☀	19/28
18(토)	☀	18/29
19(일)	☁	19/26
20(월)	☁	20/26
21(화)	☀	20/26

### 국립공원의 야생화 (39) 쇠물푸레나무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 염료로도 사용

쇠물푸레나무는 10m정도로 자라는 물푸레나무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산중턱에서 자란다. 물푸레나무는 가지를 잘라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푸레나무는 염료로도 사용되는데, 물푸레나무를 태운 재로

승복을 물들이면, 빛이 잘 바래지 않아 최상급으로 취급된다. (백성대 내장신록공민백일사무과장)

SINCE 1982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층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www.oknwood.com  
日本産 히노끼(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 탁월한 피톤치드 효과
- 아토피 치료 효과
- 비염·천식 치료 효과
- 폐적한 삼림욕 효과
-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
- 해충 방지 효과
-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 면역기능 증대 자연치유 효과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마루,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말)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재 내장 마감재, 목도보드

각종 내장재  
특수목, 남이산천연엔드재, 독일산 아이들(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범, 필름합판, 문막, 문걸

판매품목  
장롱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책꽂이 · 독서대 · 책상Set(의자 · 책꽂이)  
침대 · 샴방 · 편백건강베개(편백씨앗 + 결명자씨앗)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액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설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 · 2223 FAX.062)651-5141

· 협력사 | 우단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 호남종판 | KCC서고보드출판 | 라피즈 서고보드 출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 함성목재 | 호남종판

##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여성가족부인정)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1년 7월 4일(월) ~ 8월 5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 접수기간 : 2011. 6. 24(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장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분촌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